



통권37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4. 11. 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와 국제인권봉사회(소장 Mr. Adrien-Claude Zoller)와 국제인권법 박사 Ms. Rachel Bretz씨가 내한하는 지난 10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국제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을 벌였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국내인권상황 소개와 정대협, 인권협의 국제제도 활용에 대한 사례 발표 등 민간단체의 국제인권제도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및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무교육이 있었습니다.

눈가의 웃음에서 번져오는 깊은 가르침

편집부

밤 고요 하늘고요 / 담안도 고요 고요
 고요한 먹방에서 / 고요이 누웠으면
 솟아 오르는 분노 불타는 심장 / 수정을 녹이네 / 철
 창을 녹이네

19 56년 광주교도소, 무기수들이 출역에 나갔을 때 ‘우리의 맹세’를 거부한 젊은이가 있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말로서’ 시작하는 이 맹세는 정치공작대 출신인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수갑을 찬 채, 사방이 막힌 먹방과 독방에서 5년동안이나 생활해야 했다. 책 한 권 없는 곳에서, 간수 말고는 사람구경도 할 수없는 곳에서. 그래서 미치기도 한다는 그 곳에서 젊은이는 5년을 버티어냈다. 감방에 불은 준수사항의 글자 수를 세어보고, 천장의 판자 수를 세어보고, 고향 산천을 되새김질 하고, 빨치산으로 넘나들던 백운산, 지리산, 백야산을 떠올리기도 했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의 처절한 시간을 그는 시를 지어 달렸다.

30여년 전 기억을 되살리느라 눈을 지긋이 감은 유운영 선생님(71세)을 보았다.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선생님의 눈가에는 많이 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름이 있다. 마치 하회탈과 같은.

“또 이런 시도 지어보았어요. 들어보구려.”

먹방의 젊은이여
 고향이 어드메뇨?
 산너머 어둠너머 / 저멀리 북쪽하늘
 향도성 반짝이는

평화로운 땅

“하도 심심해서 간수에게 들려주었더니 뭘 보고 그러나 판자까지 다 뒤져 보더군. 허허허.”

궁성참배의 기사가 없는건 왜인가

유운영 선생님은 1924년 12월 26일, 강원도 김화군 근동면 광삼리에서 태어났다. 일제의 수탈로 농촌은 피폐해져 할아버지는 유랑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함경남도 이원 철산의 광산을 찾ا갔다.

“하나뿐인 방에서 여섯식구가 이불 하나를 덮고 잤지. 남동생 하나는 영양실조로 죽고, 또 하나는 폐병으로 앓아버렸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나마 산중턱에 토굴을 파고 지낼수 밖에 없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소리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어.”

가족이 한데 모여 살기에 버거웠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었다. 책상이 없어서 책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다니고,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학업성적은 늘 좋았다고 한다. 소학교 졸업 후 김책시(당시엔 성진시) 기능 공장에 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본인 담임선생이 춘천사범(지금의 춘천교대)에 갈 것을 권하였다. 1년에 1명은 꼭 보내야 자기 명예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비까지 주더란다.

“아버지 도장을 몰래 새겨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1939년에 입학해서 관비도 받고 가정교사도 해가며 학교를 마쳤지. 우리가 1회 졸업생인데 우리 손으로 교실을 짓기도 했어. 언젠가 한 번은 학교에 가보고 싶어.”

3학년때 학교에서 일본여행을 시켜주고 기행문을

“장학금이 수시기반의 삶과 하나만으로
어느날 갑자기 연예계 버리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지게 살아가고 있
는지를 생각하면 서운하지만 좋다.”

“부한 장학금 교수라는 인물의 학자적인 질증
포화아직 땅으면 한방울에 전문성을 담았던 철현
박 교수다. 당시에는 장교수였고도 다른
교수 우상과 조작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로 간급구속하고 해외 간첩으로 체포되어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됐고, 경제연행하면서 수사

써서 내라고 했단다. 선생님이 쓴 글이 좋다고 해
서 뽑히게 되었는데 ‘궁성 참배의 기사가 없는 건
왜인가? 사상의 여하를 묻는다.’며 취소가 되었다.
그때부터 일본어 과목은 아무리 성의껏 써내도 병
(갑, 을, 병, 정) 밖에 안 주었다고 한다.

1944년에 졸업해서 함남 장진군에 국민학교 선
생님을 하던 중 해방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이제
고향에 가서 죽겠다며 해방 이듬해에 김화로 내려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철원 양지국
민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운동장 연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어린이 노래를
가르칠 때가 생각이 나는군. 원발 오른발을 올렸다
놨다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 근데 연단이 썩어있던
거라. 느닷없이 발이 폭 빠지는 거야. 와 하고 폭
소가 터졌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밤에는 공청사업을
하느라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때를 회고하는 선생님
의 모습에서 행복한 시절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피재라는 이름의 고개

1950년 8월에 선생님은 정치공작대로 전남 광주
에 내려오게 된다. 도당에 배치된 지 한달만에 후
퇴를 하게 되었는데 나이많은 선배들을 두고 떠나
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젊은 놈이 세월 좋을
땐 있다가 세월 나쁘면 올라가고 하면 안될 것 같
아서’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도 여전히 신문을
만들고 교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다. 송환된 이인모
선생님과 비슷한 처지였다.

“회문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피재라는 이름의 재
가 있지. 정전 직전에 그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얼 노조간부 간급구속사건에 이르기까지 사회당
국은 이들 민족민주운동 활동가들을 정치범으로
여겨워지자 경계연행 강제수사 방편으로 이 계도
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몇가지 수칙을 통하여 간급구속제도의
악용과 악용을 알아보자.

94년 대북위 국정감사에서 정영달 의원이 제
출한 출마하여 간급구속장으로 연행된 수는
42명으로이고 그 가운데 28명이 세종에서 서
초청장을 받았을 뿐 72명은 모두 기자회견하고



▶젊은 날의 시련을 깊은 은화함으로 담아내는 유운영 선생님. 연안이씨
문집을 번역하고 계신다.

달밤에 허옇게 쌓인 것이 보였어. 무언가 하니 해
꼴과 뼈가 개울물에 밀려 쌓여있던 거지. 부상당한
전사들이 아지트에서 수백명이나 죽어 파묻지도 못
해서 그렇게 해꼴이 뒹굴게 된 거지. 옛날 사람들은
어찌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피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대. 유골들을 매장하고 명
복을 벌었지.”

1954년 여름에 산에 올라가니 뼈라만 수두룩하
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천을 지나던 중 8월 25일에 체포되어 광주
로 압송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전투부대원이 아니라서 2심에서 무기로 확정되었
다. 서른살 새파란 나이에 먹방에 간혀 기약없는
감옥살이를 해야하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 전에 아버지가 손자를 봐야한다며 오신 적
이 있었어. 통일 되기 전에는 결혼 안하겠다고 결

눈가의 웃음에서 번져오는 길은 가르침

심하고 있던 때라 그냥 내려가셨지. 내가 외아들이고 밑에 여동생이 셋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도 원산에서 헤어질 때 손자를 안고 싶다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이인모선생님처럼 전쟁포로로 군사분계선 북쪽의 고향땅을 밟아 가족의 생사나마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은 언제쯤 올것인가?

4. 19 후 20년으로 감형되어 1974년에 출소하였다. 그리고 다시 사회안전법으로 끌려갈 때 까지 1년 10개월 동안 부화장, 야채상, 하수도 공사 일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하루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장화를 사려고 돈을 쥐고 나가던 중 성동서에서 부르길래 갔지. 그러더니 못가게 하고 대전으로 보내서 2년 후 청주로 옮긴 뒤 1989년 10월 12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지.”

‘먹방의 짧은이’는 어느새 초로에 접어든 무의탁자가 되어 수원시 생활보호소로 보내졌다.

짧은 사람은 늘 공부해야 한다

생활보호소에서 낸 주민등록증을 보니 파리한 낯빛의 노인이 그런 시설 특유의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도 영민하고 겸허했던 청년의 변모가. 그리고 선생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을 동창생들의 안락한 노후가 스쳐 지나왔다. ‘이건 불공평하다. 왜 말없이 참된 길을 가는 이에게 이리도 풍상이 많아야 하는가’ 잠시 상념에 빠졌다.

“거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엿장사도 하고 고려합섬에서 짐 나르는 일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조립하고 포장하는 일도 했지. 나중에는 소장이 ‘저런 할아버지가 다 있나?’고 탄복했어요.”

선생님은 그후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다. 1990년부터 이력서를 써 나가면 이렇다.

제기동 한양방에서 약재 써는 일, 정릉 독서실, 밀음 치과 기공소, 지금은 연안이씨 월사 이정귀(조선 선조때의 문장가. 학자) 문집을 번역하고 계시다. 두꺼운 문집을 공들여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도 있다고 하신다.

지식인이지만 그런 티를 조금도 안내시는 분이라 이런저런 옷을 걸쳐도 어울려 보이는 것이리라.

선생님을 잘 아는 분은 ‘참 겸손하고 자기를 낫추는 분이라, 편한 마음으로 만나서 그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

“천성이 그런 모양이지. 내가 양보하면 다 해결될 일이거든. 서로 우기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문득 황희 정승의 고사가 생각났다. 하인 둘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일러 말하니 ‘네 말이 옳다’고 하고 다른이가 와서 말하니 ‘네 말도 옳다’고 했다던가.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릇을 선생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빈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비바람 거센 세월을 겪었어도, 슬하에 한 점 피붙이를 두지 못했어도 눈가에 온화하게 머문 웃음이 선생님의 짚은 속을 헤아리게 해주었다. ‘짧은 사람은 무엇이나 늘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이 허허로운 속에 자만감이나 구겨넣지 말고 알차게 채우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성실하게 인생을 걸무리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현 직교수마저 수사기관의 첨보 하나만으로 어느날 갑자기 연행돼 버리는 사회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인권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북한 장학금 교수”라는 언론의 악의적인 집중 포화까지 받으며 한밤중에 강제연행 당했던 정현 백 교수의 말이다. 안기부는 정교수말고도 다른 교수 두명과 유학생 한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해외 간첩단과의 연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제연행하면서 수사관은 긴급구속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도 보여주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지금은 없다.”고 말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현직교수들을 거칠게 끌고갔다.

이들은 물론 별다른 혐의없이 바로 풀려났다. 어처구니없이 당한 인권침해였다. 누구든지 생존, 자유, 신체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 구금, 축출당하지 않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과 대등하게 맞서 자신 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아직도 이땅에선 멀기만한 이상일뿐인가!

이른바 문민정권이 출범하며 “지난날과 같은 인권침해는 더 이상 없을것”이라고 장담한 일이나 최근 취임한 헌법재판소 소장이 “국민기본권에 대해선 엄격한 판단을 하겠다”는 소감은 한갓 빛좋은 개살구일 뿐 도무지 사법 당국자들에겐 먹혀들어가지 않고있다.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할 때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하여 인신구속할 수 있게 한 긴급구속제도는 예상처럼 대부분의 시국사건에서 악용되어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회망새 사건, 구국전위 사건, 남총련 사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연행, 현대중공

업 노조간부 긴급구속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당국은 이들 민족민주운동 활동가들을 임의동행이 어려워지자 강제연행 강제수사 방편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그리면 몇가지 수치를 통하여 긴급구속제도의 악용과 남용을 알아보자.

94년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장영달 의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긴급구속장으로 연행된 수는 42,295명이고 그 가운데 28%만이 법원에서 사후영장을 받았을 뿐 72%는 모두 기각되었다고 한다. 전주지법 판내에서 구속피의자 2080명중

실형은 628명이고 70%가 1심에서 석방되었

으며 94년 국감 대법원 국회제출 자료에 올해들어 6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선고율이 15%(92년 40%, 93년 62%)로 오히려 문민정부에서 무리한 구속이 더 많은 것을 본다. 94년 상반기 영장 기각율도 4.8%로 92년 0.6%, 93년 1.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8월까지 집시법 실형선고율도 10.6%로 92년 19.2%, 93년 13.4%보다 낮다.

그런데 더 딱한 일은 미군범죄

(한미행정협정상 국내수사기관이 미군범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 사법처리할 수 있게 법개정되었음)에 있어서선 1월부터 8월까지 420건중 단 한건의 구속 기소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살인 강도 강간범이거나 부정비리 세금도둑 부실공사자도 아니다. 사회정의와 자주민주통일 그리고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당국의 생각과 같지않다하여 구속하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 만에 하나 어떤 피의사실이 있다해도 신념과 양심을 걸고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특하면 강제연행하고 강제수사하는 제도는 바로 그만 두어야 한다. 또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무죄이며 구속수사 구속재판제도도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의 주장

긴급구속, 구속수사, 구속재판제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편집부

주사바늘을 꽂은 채로라도 교도소로 달려가

편집부

‘나’ 이 예순에 우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까? 조작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살고 계신 손병선 선생님.

예순을 코 앞에 두고 계신 손선생님(57세)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조국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일인지를 보여준다. 반해 평화운영위원, 평화통일연구회 상임위원, 사월혁명 연구소 운영위원, 전 민중당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민사협 운영위원 등의 굵직굵직한 직함을 가지신, 우리 시대의 통일운동가 손병선 선생님.

손 선생님의 얘기를 들려주시는 누이동생 손외순씨 등 뒤로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눈물처럼 내리고 있었다.

“내가 말만 좀 잘하고, 글도 좀 잘 쓸줄 알면, 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 볼텐데...”

말주변 없음을 여러 번 강조(?)하시는 손외순씨의 가방 속엔 손병선선생님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내가 글도 좀 잘 쓸줄 알면

“아직까지도 가슴에 한이 맺힌 일은 우리 올케 언니가 생전에 오빠를 한번만이라도 만나게 못해 드린 게...”

말을 잊지 못하신다.

손선생님의 평생동지이시던 부인 고 성순희여사가 돌아가신 것은 작년 8월 15일이다. 선생님의 구속과 동시에 아홉여달간의 수배생활을 하시던 고 성순희여사의 도피생활의 끝은 담도암. 민족대회가

열리고 있던 그날, 조국통일에 온 몸을 바쳐 투쟁 하시던 손선생님은 교도소에서, 고 성순희여사는 통일의 합성이 바로 눈앞에서 들려오는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운명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건 고등학교 2학년이던 56년이다. 각 학교의 학생회장이던 두분은 회장단 모임에서 만나신 후 첫눈에 서로를 알아 보셨단다.

“우리 올케언니는 아주 여장부였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곤 했었어요. 당시 만 해도 연애는 숭한 일로 여기셨었는데도 사람보는 안목이 있으시던 우리 아버님은 언니를 보고는 단박에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두 분은 주위의 축복속에 만난 지 4년만인 59년 3월 1일에 결혼을 하신다.

‘동지가 돼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민중과 조국앞에 바치기로 약속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힘이 되자’고 맹세하며.

동갑임에도 서로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시던 두분은 화훼업을 시작하시며 ‘환상의 콤비’를 이루셨다. 꽃처럼 심성이 고우신 두분이 화훼업을 시작하신 것은 69년.

그전까지 “한 직장에서 두 번 월급을 받아 오는 일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의 취업은 어려웠다. 대학시절 4. 19를 맞아 주도적으로 통일운동을 한 열 철청년에게 주어진 댓가는 차가운 감옥. 그때의 징역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두 분은 화훼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다.

돈문제엔 영 재주가 없으신 손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미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등 끊임없이 새로

운 재배 방법을 연구해 내시었고, 이재에 밝으셨던 부인 고 성여사는 꽃이 돈이 되는 과정인 판로개척과 유통을 맡아 처리하셨다. 그 과정에서 꽃농사를 짓는 농민의 뜻이 정당하게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도 성여사는 두 팔을 걷고 나서셨다. 인정 많고 불의에 참지 못하시던 너무나 성순희씨다운 일이었다.

두개의 무덤을 가슴에 만들고

그러나 손선생님의 가장 신뢰깊은 정치적 동지이며, 생활전선의 더 없는 콤비이셨던 성여사는 감옥에서 날라온 손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을 다 듣지 못한 채 바람 잘 날 없던 쉰여섯을 접으셔야 했다.

'사랑하는 당신께. 간밤에는 눈을 좀 부치셨나요. 나의 고통이 아무리 아프다해도 당신만 하겠습니다. 고통이 심하시거든 참지 말고 주사라도 놓아 달라고 하세요. 징역의 고통이 아무리 아리다 해도 죽음의 고통만이야 못하겠지요. 그래도 당신의 사경을 헤매는 사투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외롭고 쓰린 격리의 아픔, 징역살이의 피눈물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분단의 가슴 젖어지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장육부가 찢어지고 전신의 뼈가 녹아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께 할 일을 다했습니다. 맨손이 될때까지 온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겨레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알고부터 이웃들의 어려움을 들보면서 살아왔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천 금같이 귀한 자식들을 천대받고 설움받는 이웃들을 위해



▲ 손병선·성순희 님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두 분의 심성파도 같은 꽃 농사를 짓던 때다.

서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보, 그동안의 35년 동안 함께 앓아온 이 아픔도 이제 서서히 걷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귀엽고 사랑스럽고 불쌍한 자식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후회없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보, 부디 편안한 마음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 93. 8. 13 백번 천번 죽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선생님의 울림없는 척결한 고백을 메아리로 남기고,

"3일장을 5일장으로 연기시키면서 귀휴신청을 해놓고 오빠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언니 가는 마지막 길이라도 오빠가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그 쪽에선 회의중이라느니, 위에서 상의하고 있다느니 하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중죄인이라 잠깐도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손외순씨는

주사바늘을 꽂은 게로라도 교도소로 끌려가

전집부



▲민기협 목요집회에서 오빠 손병선 님과 조카 손민영 님의 사진을 양손에 들고 계시는 손외순 님 함께 모여 오손도손 살아갈 날이 그립다.

우리 오빠아..." 심장서린 흐느낌.

94년 5월 19일 선생님은 또 하나의 하늘이 무너짐을 겪으셔야 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장남의 피멍 맷힌 가슴으로.

'보고싶은 어머님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음식도 접수시지 못하고 몸은 아파서 고통스럽고 자식은 멀리 있지도 않으면서 오지도 않고,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하루에도 몇번씩 어머님 곁으로 갑니다. 지난 번에 동생들과 여기에 오셨을 때, 저는 이것이 어머님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남이란 걸 짐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게 눈물을 닦으라고 주신 한쪽의 찢어진 손수건을 어머님께서 제게 직접 주신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

일년도 넘은 그 날의 답답함을 눈물로 밀어내신다.
"오히려 그 기간동안 감옥에 있는 오빠에게 수갑을 채워 놓고 계속 감시를 했대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을 저지른다니 모른다고. 세상에..., 불쌍한

각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 하필 모두들 제가 이런 처지에 있을때 며나게 되는지 몹시 쓸쓸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 불효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머님, 부디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길 간절히 빕니다. 어머니..."

- 94. 5 13 불효 병선 올림.

현대사와 함께한 가족

가슴에 두개의 무덤을 안고 있는 손선생님에겐 현재 1남 3녀의 자녀가 있다. 그중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둘째딸 민영씨와 막내아들 경민씨이다.

첫째 딸 민옥씨는 얼마전 복직되어 다시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갔고, 셋째 딸 민아씨는 민기협의 간사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둘째 딸 민영씨는 4년형을 받고 현재 청주 교도소에 있다. 아버지의 활동을 도왔다라는 이유에서다.

분단된 조국의 굴절된 현대사는 통일운동에 몸을 바친 3대의 삶을 모두 육憔고 있다. 손선생님의 아버님은 해방정국에서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운동을 벌인 이유로 2번의 옥고를 치루셔야 했고, 분단된 조국의 아픔은 손선생님과 그딸 민영에게까지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네가 세상에 태어난 지 32년 된 날이구나. 32년전 그날도 나는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는데, 오늘은 너도 함께 아버지와 같이 이 길을 걷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민영아, 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수병동지등 우리방 동지들은 네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자랄 때는 조국이 통일되서 이런 비극이 이야기로만 전해져야 한다고 다짐들을 했었는데 이젠 너까지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는구나… 부디 낙심말고 너는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그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도록 우리는 더욱 굳은 마음으로 온몸 바쳐 최선을 다하기로 하자.” - 93. 8. 19 아버지가.

희끗희끗한 머리에 수의를 입은 아버지가 까만 머리에 역시 수의를 입고 있을 딸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편지다.

“전주교도소에 계신 오빠와 청주교도소에 있는 민영이를 하루에 면회하려면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서야 해요. 한번은 오전중에 오빠를 면회하고 점심은 버스속에서 우유로 때우면서 민영이가 있는 청주교도소로 갔더니, 면회 시간이 5분 지났다면 면회를 안시켜 주더라고요.

내 하도 기가 차고 속상해서 말도 안통하는 그 사람들과 한바탕 싸우고 올라왔지만… 이제는 날씨 도 차가워 지는데 관절염이 심한 민영이가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글썽. 유독 눈물이 많으신 손외순씨다.

막내 아들인 경민씨(30세)는 어려서 뇌성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하다. 부모님의 보호속에서 생활하던 경민씨는 이제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월 1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다. 늘 고모 손외순씨의 명치끝을 꾹 눌러오는 조카다.

“숫자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오빠가 하루 빨리 나와 가족들

을 챙겨 다시 오손도손 살아야 할텐데.”

통일되면 오빠 나온대요

손선생님의 사건으로 1년이 넘도록 정신없이 법원과 교도소를 쫓아 다니다 보니 오빠가 하는 통일운동을 새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손외순씨.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그저 선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산가족의 문제인줄만 알았던 통일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올케언니가 눈을 감기 전에 주사바늘을 꽂은 채로라도 엠브란스에 실어 교도소로 달려가 오빠와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내내 가슴에 ‘한’ 같은 응어리로 남아 있는 손외순씨는 요즘 새로운 일로 바쁘시다.

두번의 상을 치르는 동안 손선생님이 한번도 귀휴허가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 시원한 해답이라도 들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아, 귀휴조치에 대한 부당한 법집행과 법의 개선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 다니고 계시다.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 놓아야 다른 사람한테라도 이런 가슴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책 한권 분량은 힘직한 손선생님관련 자료와 신문기사들을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시며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오빠가 나온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제 곧 통일이 될꺼라고.” 기도같은 간절한 소망을 나직이 말씀하시는 손외순씨 눈가에 비로소 얹은 미소가 고이고 있었다.

‘놀이’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김 미 정(회원 강사)

[이야기] ‘이익’ 소리와 함께 경쾌한 전자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완전무장(?)을 한 파리군단이 화면을 꽉 채우며 등장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10살난 조카의 날렵한 손놀림은 시작된다. 키보드를 연신 두들기며 파리군단을 하나 하나 해치워 나갈땐 자못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조카의 이 파리와의 전쟁은 곧 엄마와의 한판 대결로 변한다. 조카의 엄마(나의 큰 언니)는 그만 놀고 숙제하라는 얘기가 먹혀들지 않자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조카는 이 놀이를 그만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조카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방에 들어간다.

이날 조카는 일기를 써서 내게 보여 주었다.

오늘은 산수 숙제를 하다 말고 이모랑 컴퓨터 오락을 하면서 놀다가 엄마한테 혼났다.

…중략…엄마한테 미안하다.

…중략…내일부터는 공부를 더욱 많이 해서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

공부하는 것은 착한거고 노는 것은 나쁜일이라는 공식에 익숙한 조카앞에서 나쁜 이모가 되버린 순간이었다. 문득 씁쓸한 느낌이 들면서 이 놀이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보고 싶어졌다. 조카에게 들려줄 ‘놀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놀이’. 진정 쓸데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한 것인가?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선 확실히 금기사항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놀이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나 또한 ‘놀이’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팬한 죄의식에 젖어들곤 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놀이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는데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놀이는 그만큼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놀이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자발성을 가지는 행위이다. 놀이의 이 자발성으로 해서 우리는 놀이를 통해 갈등해소와 함께 생활에 새로운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특히 같은 생활집단 - 학교, 직장, 사회단체등에서의 놀이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집단은 생활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풍부화되면서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진다. 때론 다른 집단에 영향을 주기까

▶▶▶ 9월은 놀이를 찾으세요 ▶▶▶

(『한국민족문화총서』)

지 한다. 이렇듯 놀이는 생활집단이 그 어떤 '힘'을 발휘할 동력원이 되어준다.

같은 생활집단이 아닌 경우라도 '놀이'는 그 자체로써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작은 예로 지난 9월 양심수 후원회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연령층에서부터 사는 모습까지 제각기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어울림에는 어색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분단의 아픔을 같이 해서일까? 그리고 길놀이와 대동놀이가 밤늦게까지 계속 될때에는 가슴깊이 저며오는 감동이 있었다. 조그마했던 공감대가 큰 울타리를 형성하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놀이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찬사일까? 아무튼 놀이의 긍정적 역할은 이런 공동체의식 함양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놀이문화의 현실은 놀이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탁카페, 노래방, 프로 스포츠, 오락, 영화 등 획일화된 이들 놀이문화를 통해서는 공동체의식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놀이문화가 자본과 결부된 이기주의, 상업주의, 한탕주의화하는 사회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듯 하다. 물밀듯 들어오는 외래문화의 수용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반성과 모색이 필요할때다.

그럼, 우리의 건강한 놀이문화는 어디서부터 찾아나가야 될까?

일제시기, 일제는 마을마다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대동놀이를 무력을 동원해 금지시켰다고 한다. 민족정신을 단두질하고 조선 민중의 단결을 막아보고자 힘이었다고 한다.

이 후 일제시기를 벗어나서도 이 대동놀이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구의 저속한 문화가 보급됨에 따라 우리의 놀이문화는 심하게 왜곡된다. 이로써 자본을 근간으로 형성된 대중문화는 소비적 놀이로 판을 친다.

적어도 우리민족은 생활과 놀이가 일치되어 있었다. 일의 현장, 삶의 모습 어느곳에서나 놀이와 노래와 춤이 있었다. 논에서 논일을 하다가도 힘이 들면 노래를 하며 일을 도모한다. 노동속에서 생긴 갈등은 풍물을 함으로써 해소된다. 일·생활·놀이의 동일, 이는 우리 전래 놀이문화의 가장 큰 특성인 것이다. 건강한 놀이관과 놀이문화를 회복 창조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 우리역사의 질곡을 이해하고 되새김하면서 우리 고유 놀이의 우수성을 하나하나 잡아내어 새롭게 복원, 공동체 놀이들을 추구해야한다. 놀이문화는 스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한때 즐기는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다. 함께하는 삶을 깨지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삶의 주인으로 우뚝서게하는 놀이가 진정한 우리 놀이 문화이다.

TV와 잠으로 묻어둘 일요일 대신에

송 정 숙(회원 희망찾기)

“따” 르릉 따르릉” 오전내내 날 찾는 전화더니 이번에도 또 “정숙이냐?” 간사언니의 고운(?) 목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으아’ 며칠동안 마음 한곳에 부담으로 남아있던 산행기가 떠올랐고 꼭 내일까지 쓰겠다고 다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한 산행기가 내게 부담으로 느껴져온 것도 잠깐, 일요일의 즐거웠던 산행 기억이 떠오른다. 여러 다른 일정으로 빠졌던 산행을 이번만은 꼭 가겠다고 몇주전부터 벌렸었는데 일요일 아침 눈을 떠보니 후두둑 후두둑 철없는 빗소리가 내 마음을 무겁게 했고 벼르긴 했지만 간사한 마음이 이것저것 따지고 있었다. 우리모임 희망찾기에서는 나 혼자 뿐이고 잠을 더 자고 싶은 욕구, 비가 오면 못올라 갈텐데 가지말자 등등. 모든 평계와 부담을 떨쳐버리고 나간 도봉산 입구에는 비가 온 탓인지 최남규, 이경구, 권오현 선생님과 득행이형이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더 기다려 더 모인 회원은 두명. 다 모이고 나니 거짓말처럼 비도 몇어 소수정예로서 산을 오르기로 결정을 했다. 늘 여려명이 움직여야 했었던 다른 산행에 비해 7명의 인원은 가벼이 산을 오를 수 있었고 산에 익숙한 다른 회원들은 자운봉 정상까지 가자며 꿈에 부풀었다. 선생님들도 즐거이 산행을 주장하시니 미끄러운 길을 끔직히도 싫어하는 나이지만 군소리없이 따라나설 수 밖에. 최남규선생님께 빗길 산행은 너무 무리여서 늦게 왔던 일권이가 선생님을 모시고 하산했는데 최선생님 평계에 쉴 수도 없게되어 내심 아쉬웠다.

그런데 산행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먹구름을 먹었던 하늘이 개여 그야말로 등산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산을 오르며 착한 우리 일행들은 집에서 비온다면 버티고 안나온 후원회원들을 불쌍히 여길 수 밖에. ‘역시’ 하느님은 부지런한 사람편이구나 생각을 하며 랄라를루 오르는데, “우와 아아… !!!” 망월사가 울긋불긋한 단풍속에 꽃 안긴 모습은 입을 딱 벌어지게 했고 이런곳에 절을 세운 선조들의 기가막힌 안목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순간 다시 한번 동정하게 되는 TV 보고 있는 후원회원들.

며칠을 바라보고 있어도 싫지않을 망월사를 뒤로하고 다시 포대능선을 타는데 권선생님께서 시멘트굴을 가리키며 군사적 목적으로 능선을 따라 이런 포대를 만들어 놓아 포대능선이라 한다 하셨다.

망월사와 포대능선. 선조와 후손. 아까 산을 오르다 갑자기 마주친 무장한 미군을 만났을때 이런 좋은날, 좋은 우리산에 왜 미군이 총을 들고 있어야 하나 했던 의문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다.

몇개의 포대를 지나 다시 나서는 산행에 권선생님이 겁을 주시던 Y계곡이 나타났다. 물론 손잡이가 되어 있긴 했지만 워낙 경사가 급하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웬만한 매달리기 실력이 아니면 안될

것 같았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코스에서 '아! 더 못가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 어쨌던 손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이선생님의 말씀만 되뇌이며 죽을 힘을 다해 올랐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한번 힘든 코스를 겪고나니 그 다음부터의 고비들은 담담했다는 사실이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는 여유가 생겨 산을 찾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는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없다'고 했던가? 모두가 정겨운 사람들로 다가왔다. 정성껏 마련한 샌드위치를 권했던 사람, 우리 일행을 한 가족으로 착각했던 사람, 일요일마다 암벽을 타러 온다는 부자…

드디어 포대능성을 넘어 산을 다 내려 왔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여러가지 생각에 마음은 뿌듯했다.

'집에서 빈둥거렸을 내 주말을 좋은 사람들, 좋은 산, 좋은 하늘로 채울 수 있었다는 것.'

'산의 힘든 고비들이 결국 이상을 향해 인내하고 노력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인생의 축소판을 경험했다는 느낌.

너무 많은 말은, 마음에 묻어 둔 것의 감홍을 감소시키니 이제 그 기억은 그만 접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 감은사탑에 대한 감홍 표현을 빌려 내 산행기 끝을 맺어야겠다.

아! 망월사여, 망월사여, 망월사여….



▲산의 힘든 고비들은 이상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진리를 체험한 회원들.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우리를 할아버지, 시아버지, 며느리나며 한가족으로 보았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 인간의 불가능한 꿈은 아닐 터인데

김 태 수 (의정부교도소 수감중)

이른 새벽 찢어진 비닐창문을 통해 들어온 새벽바람이 고단한 몸위로 찬 냉기를 떨구고 가는걸 보니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같이 변덕스런 날씨와 일교차가 심할 땐 감기란 놈이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민가협님들 건강을 염려케 합니다.

가을엔 바람 한자락에도 생각하나, 구름 한조각에도 생각하나. 아래저래 사색과 그리움이 많아지는 계절인가 봅니다. 바쁘기보다는 바쁜척 살아가는 징역살이의 모양새라 잠시만 마음에 긴장을 풀면 마른솜에 물 스며들 듯 슬금슬금 보고픈 사람들의 모습이며 정겨웠던 지난날들이 떠올라 과거에 갇혀버리곤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조국을 그리는 향수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향수병이 담밖의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향수병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 듯 하지요.

올해는 유난히 시국사범이 많았던 해라 민가협님들의 심려도 컷으리라 봅니다. 없어져도 시원치않을 시국사범, 공안수가 자꾸 생겨나고 늘어나는 현실은 슬픔과 분노이자 때론 연민까지 안겨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도 못세운 문민정부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또 세상은 왜그리 살벌하고 꽉꽉해지기만 하는지 온갖 흉악범을 모아놨다는 교도소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겨집니다. 흉악범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사는 교도소가 안전하고 편하겠다 여겨지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겁니다. 이렇게 흉포화되는 사회보단 못살아 불편해도 순박하고 정이 흐르는 사회가 됐으면 싶기도 합니다. 잘살면서도 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게 인간의 불가능한 꿈은 아닐터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큽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민주화를 이루듯 의식있고 바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개척해가야 할 뜻일것 같습니다.

민가협님들을 비롯한 많은 뜻있는 분들의 염려와 배려를 깊이 간직하고 사는 저희들이기에 언제나 고마움과 바른 생각을 갖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영치금, 넉넉한 가을이 되는 고마움으로 받았습니다. 의정부의 모든 동지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김태수님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 4월 29일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3년형을 밟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수번 6)에 수감중입니다.

- 10·1** - 후원회 지도위원이신 홍근수목사님의 설교집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10·3** - 음시통감시통 팀이 제14차 문학기행을 다녀왔답니다. (섬진강 물길따라 오백리 남도기행)
- 10·4** -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박래군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 안영민군의 재판방청을 했습니다. 모두진술과 직접 신문 답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참여와 연대, 의정토론회 ('오늘의 의회, 의회개혁, 의회감시')가 있었습니다.
- 10·5** - 정화려씨의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모두진술에서 '구국전위' 와 북한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 국민대 대동제 중 국보법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법대, 사회대 장터에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격려방문을 다녀왔습니다.
- 10·6**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 기독교회관에서 권태평님(강기훈 씨 어머니)의 "너를 위한 촛불이되어" 출판기념회 및 강기훈씨 석방 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 안기부, 정현백(성대), 김홍진(승실대) 교수와 독일유학생 이태훈씨를 연행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10·7** - 경기도 안산경찰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한총련 조통위원장 김병삼씨를 구속했습니다.
-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울산경찰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이갑용위원장 외 8명에 사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10·9** - 진관스님과 새길교회 방문. 후원회에 한결같이 성원해 주심에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 고 신향식 선생님 12주기 추도식이 있어 묘소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10·10** - 국제 앰네스티의 클리어 맥베이, 빼에르 로베르트 조사관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 10·11** - 서울대 대동제 기간중 있었던 구학협, 유가협 장터를 방문(11~13일까지)했습니다.
- 서울경찰청이 1,000여명에 대해 정치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밝혔습니다.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회의' 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 한총련 제1기 의장 김재용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회

- 10·12**
 - 안재구 선생님 두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반대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소식지를 발송했습니다.
- 10·13**
 - 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낙성대 집들이 보고와 10월 산행, 11월 역사기행, 그리고 만남의집 공간 활용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 10·14**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 10·15**
 - 유원호 선생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구속중인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의 딸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날 이창복 선생님은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나와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 부산 경찰청,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영남위원회 위원장 김동철씨 등 조직원 12명을 이적단체 구성 협의로 긴급구속했습니다.
- 10·16**
 - 후원회 10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도봉산.
- 10·17**
 - 전북지방 경찰청 보안과, 원광대생 박미영 외 4명을 이적단체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무사 전북지부도 '단기학생동맹'에 가입한 협의로 고백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 10·18**
 - 청소년 단체 [샘] 김용우 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 사민청 정치학교장 활동과 관련해, 안기부 수배를 받아온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안기부에 자진출두 했습니다.
 - 경찰청, 서울, 부산, 경남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 최일봉 씨 등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법무부가 11.1부터 교도소 내에서의 집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10·19**
 - 안재구, 정화려, 이영기, 유성찬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 위싱턴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0·20**
 - 94 양심수후원회 역사기행과 관련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박근직 회원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노민문연' 사건으로 구속된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 10·21**
 - 국제 앤데스티 아시아지역 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해 구속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 북미 기본 합의문이 서명되어 발효되었습니다. '경수로 원자로 대체', '정치, 경제관계 완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 강화노력'으로서 이땅에 드리웠던 긴장국면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 10·22** - 후원회 전 간사 노태훈씨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10·23** - 신풍현 선생님의 고희 잔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통일되는 그 날까지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 10·24** - 회원분들께 역사기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후원회 간사 두분이 참석했습니다.
 - 제주 경찰청, 제주지역 대학생 6명을 '새오름' 사건 혐의로 긴급구속했습니다.
- 10·25** - 범민련 전창일 남측본부 부의장 첫 재판. 모두 진술.
- 10·27** - 민가협 목요집회. 전기협 사건으로 구속된 가족들 함께 했습니다.
- 10·28** - 범민련 남측본부의장 강희남목사님 첫 재판 모두 진술이 있었습니다.
 - 5년이상 장기수 111분에게 영치금을 넣어 드렸습니다.
- 10·29** - 강기훈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10·30** - 70 노구를 이끌고 열심히 일하신 황용갑 선생님께서 작은집(전세)을 마련하여 집 들이를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 10·31** - 출소하신 선생님들과 '낙성대', '봉천동' 만남의 집에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김영태선생님 아드님이신 김룡재님께서 송환을 협조해 달라는 편지를 북경발로 보내왔습니다. 통일원에 신고하고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 워싱턴 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전해드렸습니다.

..... 11월 산행

언 제 1994. 11. 27. 10시 (역사기행 일정관계
로 넷째주에 갑니다.)

어 디 로 북한산
모이는곳 우이동 그린파크 앞.
갖 출 것 맛있는 도시락(보온물병=더운물)

책 · 소 · 개

〈인생의 계절〉 〈새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개혁〉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시기도 한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님의 설교집 제5권 〈인생의 계절〉과 제6권 〈새시대의 도전···〉이 한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설교집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6월동안의 징역 생활을 통해 얻은 심화된 생의 체험과 명상이 반영되어 있는 책으로 각권 7,500원입니다.

10월에 구속된 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

김병삼(제1기 한총련 대변인)
임영기 박정숙(민정련 구로지부회원)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최일봉(출판인) 박순봉(출판인)
남수경(고려대졸) 이혜숙(학원강사)
정원현(외대) 국경화(동덕여대졸)
안우춘(단국대) 한규한(서울시립대)
이택규(외대) 곽곤수(방위복무)

서호식(경남대) 정도균(동래봉생병원)
김종철 고희용(양산노협)

서수진(국제신문 전산) 임철진
(일산노동자) 최은광(회사원) 한
은희(동아대졸) 박정주(동덕여대
졸) 정은경(대정 노동자) 정동석
(현대자동차) 고창덕 홍성우 양
중호 김병제 이미영 고동완(이상
제주대학교 새오름 사건)

박수진 박미영(이상 원광대 재학
중인 학생)

현대중공업 파업관련

구영식(수석부위원장) 김명기(쟁
의부장) 황제윤(조직쟁의실장)
조성익 이인제 탁학수 서정일 정
명환 김영식 김진현 손준열 김종
철 임영모 박종학(이상 대의원)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짝을 찾는 사람들(동덕여대 모
임) 이기배(동대문구 제기동)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94년 역사기행

양심수후원회가 지난해부터 회원사업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기행,

그 두번째가 94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를동안 열립니다.

늘 만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우리 회원 서로가 마음도 얼굴도 더 가까이에서 익히고

바쁜 일상속에서 자칫 잊기쉬운 조상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보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모두 함께하셔서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갑시다.

언 제 : 94. 11. 12 ~ 13(토, 일요일)

어디로 : 충남 공주, 부여지방(백제문화권 및 갑오농민전쟁 유적지, 신동엽 시비등)

모이는곳: 3호선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주차장

떠나는 시간 : 11월 12일 늦은 3시, 정확히 출발합니다.

가지고올 것 : 두꺼운 옷, 필기도구, 세면도구, 손전등 맛있는 간식거리 등)

회 비 : 4만원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765-5282, 763-2606)로 문의바랍니다.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쥐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5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44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6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 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작

제일은행 128-10-201180
신탁은행 15701-1213703
국민은행 006-01-0601-098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권)
(양심수후원회)
(권오현양심수후원)
(권오현 양심수)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
양심수후원회